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1)

- 읽을 말씀 마 5:13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의를 위해 박해 받는 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마 5:13-16)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 말씀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종들”에게 한 것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절까지는 “그들”이라고 했으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11-16절에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가 지적한 앞 구절들만 보면 그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문맥(18, 20, 21-48절, 6-7장)을 보면 계속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2절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반열이고 19절에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볼 때 이들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율법으로의 주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19절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두에게 하시는 “**너희 의가 서기 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곳에 나오는 소금과 빛과 유사한 말씀(막 9:50, 눅 14:34, 엡 5:8, 빌 2:15)을 보면 모두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목회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만약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이해와 해석이 옳다는 증거는 두 가지 인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으므로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팔복의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상에서 팔복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

소금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소금의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하며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추측한 개념과 교훈들일 뿐이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조미료’와 ‘방부제’ 일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진짜 의미는 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닌 ‘짠맛을 회복한다’ 는 것으로, 소금 자신이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공동번역은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로, 새번역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방부제로 설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 이라는 말이 세상의 어둠을 전제하듯, ‘세상의 소금’ 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 어둠에 대조한 것이듯 세상의 소금도 세상의 부패에 제동을 거는 방부제로서의 역할로 보아야 합니다.

2) 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는, ‘세상의 소금’ 이라는 말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염될 경향과 더럽고 도발적으로 될 성향을 암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눅 17:26-30).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최대한 막고 지연하기를 원하셔서 이를 억제하는 영향력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들 중의 으뜸이 국가(법을 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이 있는)와 가정(결혼과 가정생활을 포함하는)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하게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억제하는 영적인 방부제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팔복의 특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구별과 침투입니다.

①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먼저,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양용

의 교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제자의 특징은 본 단락 바로 앞에 위치한 팔복에 잘 드러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어야 하고 계속 그 특성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은 본문 뒤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팔복의 사람이 됨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설명해주신 대로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이며,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②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나 산 속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살되, 팔복의 사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회가 썩었으므로 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썩은 그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 사업, 교육, 연예계 등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의 각 분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단체가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세상에 제동을 거는 소금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맛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